

책 임 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홍 성 기(02-2100-2990)	담 당 자	성 미 라 사무관 (02-2100-2992) 권 진 웅 사무관 (02-2100-2983)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김 동 궁(02-3145-7550)		김 대 진 팀장 (02-3145-7440) 류 영 호 팀장 (02-3145-7552)
	여신전문금융협회 본부장 이 태 운(02-2011-0710)		이 효 택 부장 (02-2011-0724)

제 목 : '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
부담은 낮추고, 혜택은 넓히고, 공정성은 높이겠습니다.

- ◆ 3년 주기 **카드수수료 재산정**을 계기로 **소상공인** 등 **가맹점**, **카드이용자**, **카드사** 및 **전문가** 등의 **카드수수료** 관련 **다양한 의견을 수렴**
- ⇒ **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** 추진
- ① 합리적인 **카드수수료 원가산정**을 통해 **가맹점 부담 적격비용 산출**
 - ② **우대구간 확대(5억원 이하→30억원 이하)**를 통한 **소상공인 부담 경감**
 - ③ **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**을 통해 **카드사 건전성**을 제고하고, **카드사 경쟁력 제고**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
1 추진경과

- 올해는 '12년, '15년에 이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의 해로 그간 제기된 카드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 등 종합적인 개편을 검토
 - 금융위·금감원은 자영업자·소상공인 등 가맹점과 소비자(카드회원),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「카드수수료 개편방안」을 마련
- '18.11.26(월) 오전, 당정협의를 거쳐 「카드수수료 개편방안」을 확정

2

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주요 내용

※ 금번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카드수수료 인하여력 총 1.4조원 중 '17년 이후 발표·시행한 정책효과를 제외한 **0.8조원** 이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인하

① 우대구간 확대(5억원 이하→30억원 이하)

- (신용카드) 우대수수료를 적용구간을 現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
 - 연매출 5~10억원 및 10~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.65%p(약 2.05%→1.4%) 및 약 0.61%p(약 2.21%→1.6%) 인하
- (체크카드)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를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
 - 연매출 5~10억원 및 10~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각각 약 0.46%p(약 1.56%→1.1%) 및 약 0.28%p(약 1.58%→1.3%) 인하

②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

⇒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2% 이내로 인하 유도

- 마케팅비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연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약 0.3%p 인하(평균 2.2%→ 평균 1.9%) 유도
- 연매출 100~500억원 가맹점도 약 0.22%p 인하(평균 2.17%→ 평균 1.95%) 유도

※ 해당 매출액 구간의 평균적인 목표치이며, 각 사별 비용을 및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수준은 다를 수 있음

③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카드산업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

-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 마케팅비용 과다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을 제고
 - 핀테크 결제수단 확대,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 유도
- ⇒ 금융당국-업계간 TF를 구성하여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

1. 매출액 구간별 효과(추정)

※ 여전협회 제출 자료를 기초로 추정

① 우대가맹점(30억원 이하)이 전체 가맹점(269만개 기준)의 93%로 확대

* ('12.1월)68% → ('13.7월)73% → ('15.1월)75% → ('16.1월)78% → ('18.7월)84% → ('19.1월)93% 예상
 '12년 개편 後 '15년 개편 後 '18년 개편 後

②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여 소상공인 부담 대폭 경감

- (5~10억원) 전체 인하분의 37% 배분 ⇨ 신용 0.65%p, 체크 0.46%p ↓
 19.8만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147만원 경감 예상

* 담배판매 편의점 약 77%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며, 금번 개편으로 연매출액 5~10억원인 편의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214만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

- (10~30억원) 전체 인하분의 30% 배분 ⇨ 신용 0.61%p, 체크 0.28%p ↓
 4.6만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505만원 경감 예상

③ 초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부당한 수수료율 격차* 시정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

* 現 30~5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 약 2.18% vs. 500억원 초과 가맹점 수수료율 약 1.94%

⇨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 경영부담 경감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소득증가 유도

<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>

가맹점 구분 (연 매출액 기준)			현행	개선안	인하폭
신용	우대 가맹점 (우대수수료율)	~3억원	0.8%	0.8%	-
		3~5억원	1.3%	1.3%	-
		5~10억원	약 2.05%	1.4%	약 0.65%p
		10~30억원	약 2.21%	1.6%	약 0.61%p
	일반 가맹점 (평균수수료율)	30~100억원	약 2.20%	평균 1.90%	평균 0.3%p
		100~500억원	약 2.17%	평균 1.95%	평균 0.22%p
체크	우대 가맹점 (우대수수료율)	~3억원	0.5%	0.5%	-
		3~5억원	1.0%	1.0%	-
		5~10억원	약 1.56%	1.1%	약 0.46%p
		10~30억원	약 1.58%	1.3%	약 0.28%p
	일반 가맹점 (평균수수료율)	30억원 초과	약 1.60%	평균 1.45%	평균 0.15%p

2. 주요 업종별 효과(추정,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중심)

※ 여전협회 제출 자료를 기초로 추정(10억원 초과 가맹점 중 10~30억원 구간 가맹점수 비중을 80%로 가정)

- ① **(편의점)**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매출액 5~10억원의 편의점 1.5만개의 연간 322억원(가맹점당 약 214만원)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
 - 연매출 10~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137억원(가맹점당 약 156만원)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
- ② **(음식점)**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매출액 5~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.7만개의 연간 1,064억원(가맹점당 약 288만원) 경감 기대
 - 연매출 10~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576억원(가맹점당 약 343만원)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
- ③ **(골목상권)** 매출액이 5~10억원인 슈퍼마켓, 제과점 등 소상공인에게 연간 84~129억원(가맹점당 약 279~322만원)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
 - 연매출 10~30억원 구간 가맹점의 경우 연간 25~262억원(가맹점당 약 312~410만원)의 수수료 부담 경감 기대

4 카드업계 간담회(11.23) 주요 내용

- ☐ 한편,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일 당정협의를 통한 최종안 확정에 앞서 '18.11.23(금) 여전협회장 및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
 - 카드사 사장단에게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업계 건의를 청취하였음
 - 이 자리에서 최위원장은 “신용카드가 민간 소비지출의 70%를 차지하는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한 만큼, 카드업계의 국민경제 차원의 사회적 책임, 가맹점·소비자와 상생을 통한 발전이 중요”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, 금번 종합대책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음

- 업계에서는 부수·겸영업무 확대 등 수익다변화를 위한 규제완화,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변경 승인, 가계부채 총량규제 합리적 조정 등 정책과제를 건의하였으며,
- 최위원장은 “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금융당국-업계간 공동 TF를 구성하여 카드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

※ <첨부> 카드수수료 관련 주요 Q&A
<별첨>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

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

〈첨부〉 카드수수료 관련 주요 Q&A

1. 금번에는 왜 영세·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가 없이, 영업규모가 큰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혜택을 부여하는지?

□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·중소가맹점 등에 집중되었음*

* ('12년) 매출액 2억원 이하 1.8%→1.5%

('15년) 매출액 2억원 이하 1.5%→0.8%, 2~3억원 2.7%→2.0%→1.3%

('17년) 매출액 2~3억원 1.3%→0.8%, 3~5억원 2.5%→1.3%

* 우대범위 확대(2.3억원→3.5억원),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, PG 하위 온라인사업자·개인택시사업자 우대수수료 적용 등 총 6천억원 규모의 수수료 인하조치기 시행 및 시행예정

○ 또한,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*에 따라 현행 영세·중소가맹점은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은 없음**

*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결제금액(매출액)의 1.3%만큼의 세제혜택을 부여(부가가치세법 §46조①항)

**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(0.8%) < 부가가치세 세액공제(1.3%)

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(1.3%) = 부가가치세 세액공제(1.3%)

□ 반면, 연매출 5억원 초과 자영업·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인건비·임대료 등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2% 내외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

○ 또한,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누리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마케팅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 가맹점에 비해 더 낮은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

➡ 매출액 5억원 초과 차상위 자영업·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,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하는데 집중

2. 금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에 따라 카드사의 경영건전성에 문제는 없는지?

□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확인된 인하여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

○ 그간 조달비용 등 원가하락에 따른 인하여력과 카드이용액 증가 추이*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음

* 카드이용액 증가율 : ('14년) 5.4% → ('15년) 8.6% → ('16년) 12.0% → ('17년) 5.6%

□ 다만,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단기적으로 카드업계 수익성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나,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

○ 특히, 외형확대를 위해 대형가맹점 등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마케팅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수지개선이 가능한바, 이를 위해 카드사들의 고비용 마케팅비용 감축을 유도할 예정

- ❶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, 가맹점 규모별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의 상한을 차등 설정

- ❷ 카드상품에 과도한 부가서비스(포인트, 할인, 무이자할부 등) 탑재 관행 개선

- ❸ 대형 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 (해외여행경비 제공 등) 제한

○ 아울러 카드사의 수익 다변화 및 비용절감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

3. 금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로 부가서비스 축소,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의 혜택은 줄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?

☐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결제 편의성, 평균 1개월간의 신용 이용 및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음

☐ 특히, 포인트, 할인,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 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정

* '17년중 부가서비스 혜택은 약 5.8조원인 반면, 카드 연회비는 약 8천억원 수준

☐ 수익자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

4. 연매출 30억원까지 우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닌지?

□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우선 차상위 영업규모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

○ 연매출 5억원 이하 구간은 그동안 지속적인 인하조치로 이미 수수료율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이며,

-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혜택을 감안할 경우 카드수수료 실질 부담은 없는 상태

○ 따라서, 내수부진과 인건비·임대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매출 5~10억원(약 20만개 가맹점) 및 10~30억원(약 4.6만개) 자영업·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에 집중*

* (5~10억원) 현행 약 2.05% → **1.4%** * (10~30억원) 현행 약 2.21% → **1.6%**

- 특히, 5~10억원 구간은 담배 판매 편의점(평균 매출액 약 6.5억원) 대부분이 포함되는 구간으로 세금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에 효과적*

* 편의점의 약 77%가 연매출 10억원 이하

- 10~30억원 구간은 연매출 5억원 초과 일반사업자의 약 33%를 차지하는 구간*으로 수수료 인하의 사회적 후생효과를 고려

*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통계 기준

5. 연매출 500억원 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지?

- 포인트, 할인 등 카드상품 부가서비스는 주로 대형가맹점에서 이용됨에도 불구하고, 카드사들은 동 비용(마케팅비용)을 혜택과 무관하게 전 가맹점에 공동으로 배분하는 경향
- 그 결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현상*이 나타나고,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이라는 문제제기가 지속됨

* (30~500억원 구간) 카드수수료율 약 2.18% vs. (500억원 초과) 약 1.94%

-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
- 500억원 이하구간에 대해서는 마케팅비용률 상한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여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불공정 문제를 시정
- 결과적으로 30~500억원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하 유도는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차별을 시정하는 차원이며,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아님
- 다만, 동 구간의 수수료율 인하효과를 통해 고용여력이 있는 도·소매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되어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